“꽃처럼 화려한 ‘매화’…PVP 판도 바꿀 것”

〈신규 클래스〉 〈개인간 전투〉

펄어비스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이 신규 콘텐츠 ‘매화’로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매화는 원작 ‘검은사막’에서도 큰 인기를 끈 클래스(직업)로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 실제로 17일 매화를 추가한 이후 ‘검은사막 모바일’은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 조용민 총괄 PD와 남창기 콘텐츠 팀장으로부터 화제의 신규 클래스 매화와 ‘라모네스 전장’ 등 최근 새롭게 추가한 콘텐츠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콘텐츠 ‘매화’로 ‘검은사막 모바일’을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로 끌어올린 조용민 총괄 PD와 남창기 콘텐츠 팀장은 “진영 간 전투(RVR)와 미지를 탐험하는 재미를 갖춘 ‘대사막’을 최대한 빨리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계속 출시될 신규 클래스도 기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펄어비스

“빠르고 강력한 매화, 새로운 재미
가문콘텐츠 확장, 유저들 반응 굿
라모네스 전장, 초보자 배려 노력”



조용민 총괄 PD



남창기 콘텐츠 팀장

-이번 업데이트를 소개해 달라

조용민(이하 조) “비활성 콘텐츠를 살리기 위한 개편과 함께 신규 클래스 매화와 가문 아이템 휘장 등 많은 것을 준비했다.”

남창기(이하 남)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새롭게 해 매화를 원작과는 다른 모습으로 완성했고, 기술 연출적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매화와 설화에 전 클래스를 통틀어 처음으로 ‘잡기 불가 기술’을 추가했다. 개인 간 전투(PVP)에 전혀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한다.”

-매화의 매력은.

남 “화려한 외모다. 또 빠르고 날렵한 느낌이지만,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다.”

-각성이 아닌 계승으로 나온 배경은.

남 “현재 무사가 무신도를 들고 있어 도검과 편전을 쓰고 싶은 이용자를 위해 매화의 계승 클래스 설화를 먼저 선보였다. 모바일에서 매화를 육성하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

-기술 효과가 화려하다. 중점을 둔 사항은.

남 “속도감을 느끼면서 무기를 휘둘렀을 때 꽃잎이 파워풀하게 퍼져가는 느낌을 살렸다. 매화는 매화꽃의 붉은 빛을, 설화는 눈꽃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향후 클래스 업데이트 방향은.

남 “이용자들이 원하는 클래스를 먼저 보여줄 것이다. 급하게 만들기보다 공들여 완성한 클래스를 선보인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게임 전체적 그림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기술 수련을 통합했다. 배경은.

조 “신규 클래스를 통해 새 재미를 주고 싶었다. 이용자들이 여러 클래스를 성장시켜 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클래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다.”

-가문콘텐츠의 확장인 ‘영광의 길’에 대한 반응은.

조 “대다수 이용자들이 즐기고 있다. 업데이트 후 이용자들의 가문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어 11단계를 추가했다.”

-라모네스 전장은.

조 “기획 당시 혼자만의 대전형태가 아닌 누구나 공감하는 규칙을 넣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자 했다.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타격 데미지 보정과 체력 보정 등을 진행했다. 전투 긴장감도 높이고 싶었다. 적팀 전체에 빙결 효과나 체력 회복 효과도 좋지만 자신의 전투력이 급격히 올라가 결과에 변수를 줄 수 있는 규칙을 넣었다.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모네스 전장 이후 PVP 콘텐츠 요구가 많다. 계획은.

조 “기존 결투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전투력으로 매칭을 하다보니 매칭 풀이 줄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AI) 매칭을 적용했다. 근본적으로는 매칭 풀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향후 업데이트 계획은.

조 “진영 간 전투(RVR)와 미지를 탐험하는 재미를 갖춘 ‘대사막’은 최대한 빨리 선보일 예정이다. 경영의 느낌을 제대로 살린 ‘월드경영 시즌2 : 거점투자’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다. 새 사냥터도 준비하고 있다. 어둠의 신 하둠이 관장하는 세계로 이동해 새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3분기 내 공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저들에게 한마디.

조 “올해 들어 가장 고무적인 것은 임시점검 최소화다. 1번 밖에 없었다. 유저들이 뜻밖의 임시점검을 맞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 “앞으로 출시될 신규 클래스를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또 액션이 강점인 만큼 자동전투를 하더라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24~26일 ‘NDC’, 유명 게임사 노하우 공유한다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가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성남 넥슨 사옥 및 인근 발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DC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지식 공유의 장으로, 매년 100개 이상의 강연이 진행된다.

올해 NDC에서는 ‘카트라이더’와 ‘리니지M’, ‘피파온라인4’ 등 인기 게임 담당자들이 성공적인 라이브 게임 운영 및 개발기를 나눈다. 캡콤과 슈퍼셀, 락피쉬게임즈, 그라인딩기어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 종사자들도 참여해 ‘레지던트 이블2’, ‘몬스터 헌터’, ‘브롤스타즈’, ‘에버스페이스’, ‘패스 오브엑자일’ 등 글로벌 히트 타이틀의 개발 노하우를 공개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고도화된 신기술을 활용한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아트전시회와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아트전시회의 경우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25개 게임 프로젝트에서 개인작품과 팬아트, 프로젝트 작품 등을 전시한다. 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 인터렉션 등 신기술과 게임아트가 결합된 특별한 작품도 공개한다. 김명근 기자



SK텔레콤은 22일부터 독거 어르신 ICT 돌봄 서비스를 순차 시행한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SKT, 독거 어르신 돌봄 앞장

SK텔레콤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2일부터 8개 지자체(서울 성동구·영등포구·양천구·중구·강남구·서대문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에서 독거 어르신 대상 ‘ICT 돌봄 서비스’를 순차 시행한다.

SK텔레콤은 기술과 기기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업무 담당 일자리를 만든다. 서비스를 위한 ‘ICT 케어센터’ 운영은 사회적 기업 행복한 에코폰이 맡는다.

SK텔레콤은 5월 중순까지 2100명에게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를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스마트 스위치와 문열림감지센서 등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한 에코폰은 ICT 케어센터가 누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감지 시 심리상담, 비상알림, 방문조치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ADT캡스와 연계해 업무가 끝난 야간에도 119 비상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ICT 돌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현장관리 매니저 등 총 25명의 인건비를 부담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